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우리 사회는 최근 격차와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격차, 양극화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원인과 측정방법에 따라 정책방안도 달라질 수 있음
 - － 불평등 및 빈곤 등 관련 문제 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미국의 대표적인 빈곤연구소인 IRP(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방문을 통해 주요 빈곤 및 불평등 연구자와의 미팅을 통해 현재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고자 함
 - － 단기적으로는 학문적, 정책적으로 미국의 격차와 빈곤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빈곤 및 분배 측정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음
 - －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통해 다양하고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 대응 방안을 살펴볼 수 있음
-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커어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장애인 등 돌봄 제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지원시설 등을 관찰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현 트럼프 행정부 주요 사회정책 내용과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 미중 무역갈등, 미국 불평등 및 인종차별 확대 등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2020년 공화당 및 민주당 대선 사회정책 주요 공약,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논의
-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미국 대학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 박사 혹은 박사 과정 등의 연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연구원에 대한 관심 제고와 최근 미국 학계의 연구동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

□ 출장기간

- 2019년 9월 2일(월) ~ 2019년 9월 8일(일)

□ 출장국가(도시)

-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워싱턴 D.C.

□ 출장자

- 조홍식(원장), 김태완(포용복지단장), 정은희(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날짜	세부일정
9.2(월) 오전	한국 시간 오전 인천공항 출발
현지시각 오후	미국 공항 도착(시카고 도착)→Madison Dane County Regio 도착
9.3(화)	
오전	미국 IRP 방문 ○ 인터뷰: Timothy Smeeding(UW-Madison 공공정책 및 경제학 석좌교수) ○ 주제: 미국 빈곤 및 불평등 현황과 측정, 우리 시사점 장소 : IRP 내 연구소
오후	한국인 유학생 간담회 ○ 참석자: 이하나, 김윤아, 김희진, 김보미(Population Health Insititute, evident analyst), 김영민(UW-White Water 교수) ○ 주제: 연구원 소개 및 미국의 최근 빈곤관련 연구 동향(격차, 이민자, 소수자 등) 장소: UW-Madison 연구실
9.4(수)	
오전	Waiseman Center at UW-Madison ○ 인터뷰: Jinkook Hong(Professor) ○ 주제 : 사회서비스(발달장애 보호서비스와 치매서비스) 관련 연구, 정책동향 및 우리 나라 커뮤니티 케어 운영 관련 시사점 장소 : Waiseman Center at UW-Madison
오후	UW-Madison Department of Sociology ○ 인터뷰: Chae-yun Lim(Professor) ○ 주 제: 미국 빈곤, 노동시장 및 사회적 자본 등에 대한 연구 동향 장소 : UW-Madison 연구실
9.5(목)	Madison Dane County Regio → 워싱턴 국제공항 이동
9.6(금)	
오전	미국 일정 정리
오후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방문 ○ 인터뷰: Maria Cancian(공공정책대학 학장) ○ 주제: 미국 트럼프 정부 공공정책 현황과 시사점, 2020년 민주당 및 공화당 대선 주요 사회정책 공약 평가 장소 : Georgetown Univ 학장실
9.7(토)	미국 출발 → 인천공항 도착(9월 8일 17시)

가. 미국 빈곤측정 방법

- 미국 빈곤측정은 객관적-통계적 기법을 활용하되 한 가지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물질적 박탈 등도 활용하고 있음
 - 주로 소득을 사용하면서 빈곤측정, 소비와 자산 빈곤도 활용하고 있음.
 - 소득 빈곤의 측정은 비교적 상대적 빈곤으로 US 달러 사용, 절대적 빈곤은 특정 기준을 정해서 빈곤을 측정하게 됨. 절대와 상대를 합산한 지표로 Anchored를 사용. Anchored는 예를 들어 2011년에 중위소득을 고정하고, 이를 현재 시점에 적용해서 분석
 - － 이와 같이 분석시 경우에 따라 올해는 빈곤하지만, Anchored를 사용하면 빈곤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게 됨
 - － 상대적 빈곤과 Anchored를 비교하면, 2018년의 중위소득을 사용시 당해연도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 빈곤여부 측정, Anchored를 사용하면 기준연도가 고정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득이 증가시 절대적 빈곤 개념으로 비빈곤과 빈곤을 구분할 수 있음
 - 빈곤 등의 측정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함으로 소득을 빈곤측정시 주로 사용. 그러나 지출은 측정이 어려움(돌봄비용 등). 지출은 정책으로 활용하기에도 어려울 수 있음.
 - － 이외에 자산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산을 target으로 빈곤을 측정 할 수 있음
 - －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 기장방식을 통해 지출조사를 가능한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미국은 빈곤측정에 있어 절대적 빈곤은 1963년 식료품비 비율을 사용한 오샬스키 방식을 이용함. 당시 식료품비의 3배가 중위소득 수준으로 인정되어 이를 사용. 하지만 지금의 수준은 중위소득의 27%밖에 안 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제안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 노인빈곤 관련하여 자산을 활용해 빈곤을 측정할 수 있음. 이 때 주로 유동자산만 즉 금융자산만 활용하고 있음. 부동산은 활용하고 있지 않음
 - 그 이유는 부동산(=집)은 기본적 쉼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의식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됨 금융자산을 3개월 동안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자산빈곤을 측정.
 - － 한국적 상황을 보면, 경우에 따라 부동산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됨
 - 미국의 경우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과약이 어려움. 연구를 통해 소득이 없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의 최저보장 수준을 9만불로 제안한 바가 있음

- 자녀가 도울 수 없는 노인은 benefit plan을 활용시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을 받지 않아도 됨. 이와 같은 방안도 제안.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편이 사망시 정부에서 배우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미국의 노인 생활과 관련하여서는 medicare가 중요한 주제이었음. 가난하지 않으면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음.

□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

- 자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 자산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측정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가격 차이를 반영해야 함. 보충적 빈곤선에 적용하고 있음(cost of living를 고려한 지역별 차이)
- 모기지 관련하여 논의 → 역모기지 등을 고려시 빈곤측정시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도 의미 있음. 자가와 전월세 가구 간 차이가 있음.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함. 자가는 전월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 강제로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움. 독일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을 비용을 자녀들이 미지급시 정부가 우선 내고, 세금으로 받고 있음.
- 가구균등화지수
 - 미국은 공식적으로 오산스키 방식이며, 보충적 빈곤지표는 세가지 구성, fixed 첫 번째 사람, 어른과 아이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아동빈곤 측정과 관련되어 oxford 방식은 아동을 고려하고 있음. 즉 3인 이상에서 아동수를 기준으로 지수를 조정하면 됨. 반면에 제공근 방식은 아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아동빈곤 측정시 차이가 발생함
 - 미국과 유럽은 아동빈곤이 주요 관심사라면 한국에서는 노인빈곤이 주요한 관심사라는 점에서 가구 균등화지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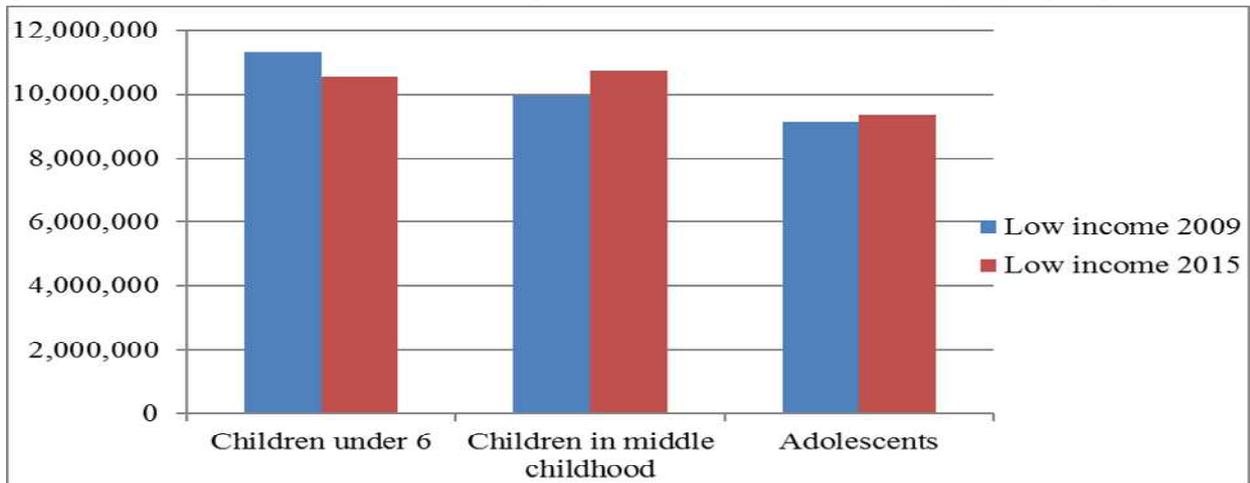
□ 불평등 관련 미국 상황

- 미국은 불평등이 높은 국가중 하나임.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려고 토의중. 그 중 하나가 모든 사람(특히 청년층)이 첫 집을 구입시 도와줄 수 있는 fund를 만들고자 하고 있음. 재원은 tax를 활용하고자 함
 - 호주에서는 pension fund를 활용. 회사에서 9%를 정부에 넣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주택 구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나. 미국 빈곤 및 복지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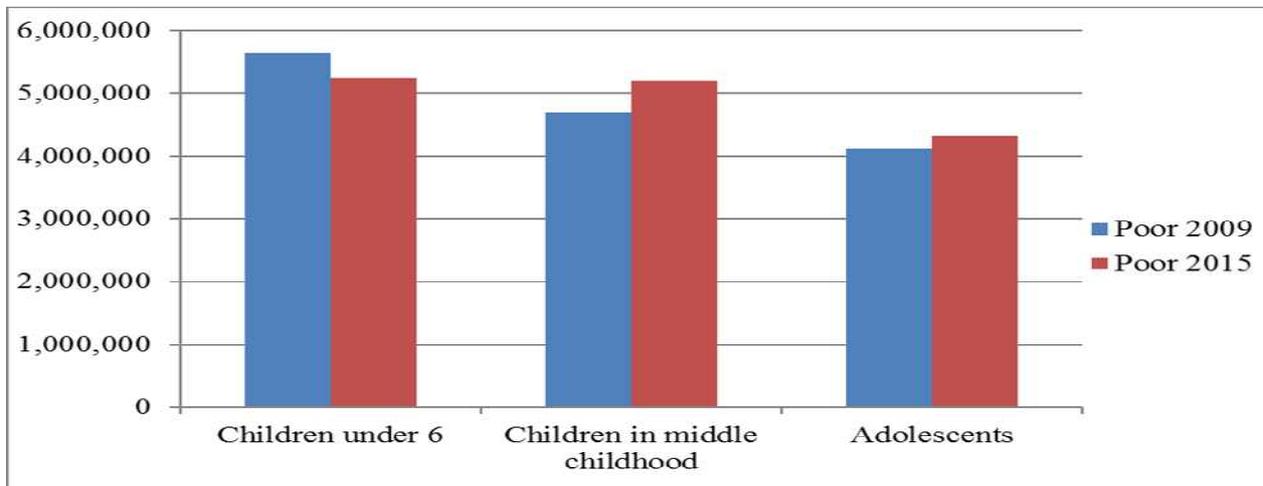
- 최근 미국내 복지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빈곤선 설정임. 트럼프 정부에서는 Chained CPI 가 빈곤층의 생활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을 오히려 현재의 빈곤기준선도 오래되고 매우 낮은 편인데 새로운 빈곤선은 기존 빈곤선보다 후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 기존빈곤선은 1960년대 설정한 식품구입에 사용되는 지출의 세배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CPI-US)를 이용하고 있으나, 새롭게 제안된 빈곤선은 수정된 CPI(Chained CPI)를 적용하여 매년 빈곤선이 조금씩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Chained CPI(C-CPI-U)와 CPI(CPI-U)는 모두 노동 통계국(BLS)에서 개발. C-CPI-U와 CPI-U는 동일한 80,000개의 상품 및 서비스 바구니를 사용하여 두 지수를 각각 생성
 - 현재 사용되는 CPI-U 측정값은 바구니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변경될 때 소비자가 소비 습관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음. 한편, C-CPI-U는 조정을 하기 위해 이전 및 이후 기간 동안 소비자 지출 습관을 조사함으로써 변화를 설명. 이 기간을 비교하여 BLS는 인플레이션 측정을 생성하고 평균을 구함.
 - C-CPI-U는 소비자가 바구니에있는 다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므로 C-CPI-U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사용중인 CPI-U의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됨
- 이로 인해 기존의 복지수급자들이 수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SNAP, Free or reduced-price school meal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의 식품보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만 새로운 빈곤선이 도입될 경우 약 200,000 근로빈곤층이 SNAP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100,000 학생이 무료 학교급식 자격을 잃을 수 있음.
- 특히 2015년 현재 약 14.8백만 명(아동 중 약 21%)이 빈곤층이고, 이 중 6세 미만 아동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의 아동에 비해 높은 빈곤율(5.3 백만명으로 빈곤 아동 중 약 23%)은 보이고 있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연령이 어린 아동의 빈곤율보다는 중간연령층의 아동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아래 표 참조)
- 빈곤상황은 나빠지는데 빈곤상황에 대한 개선노력은 더 후퇴하고 있음

Figure 1.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in low-income households by age group, 009-2015



Data source: Jiang, Granja, & Koball (2017). *Basic Facts about Low-Income Children. Children under 6 Years, 2015; Children 6 through 11 Years, 2015; Children 12 through 17 Years, 2015.*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NCCP).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Columbia University

Figure 2.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in poor families by age group, 2009-2015



Data source: Jiang, Granja, & Koball (2017). *Basic Facts about Low-Income Children. Children under 6*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포함하여 여러 영역에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주요 헤드 라인을 구축
- 2018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기회와 경제 이동성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빈곤 퇴치(Reducing Poverty in America by Promoting Opportunity and Economic Mobility)”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
 - 행정 명령은 새로운 정책을 승인하지는 않지만, 이 문서는 복지 수혜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 및 자격 요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강조
 - 구체적으로, 행정 명령은 각 주가 현행 근로 요건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모든 복지 프로그램 자격 요건 (백악관)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장
 - 이 명령은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 및 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 이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효율성을 위한 예산 절감을 요구하면서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보다 유연성을 제공

- 트럼프 정부의 연례 예산 제안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주택 지원 및 식량 지원을 포함한 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상당한 방어적 비용과 인프라 지출 증가를 권장
 - 특히, 트럼프의 가장 최근 예산 요청에는 주택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거함으로써 주택 및 도시 개발부에 대한 기금의 13% 감소가 포함
- 2019년 5월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사용중인 CPI-U가 아닌 “연쇄 CPI”와 같은 대체 인플레이션 지수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추정치를 낮추겠다고 제안
 - 공식적 빈곤선은 수십 년 동안, 1963년에 오산스키 방식에 인플레이션을 곱하는 것으로 정의.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지수를 연쇄 CPI 메트릭으로 변경하면 빈곤 임계 값의 조정이 매년 약 0.2% 느려질 수 있음.
 - 인플레이션율이 낮을수록 빈곤층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음식과 같은 수단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규모가 줄어들어 복지 수혜자에게 큰 영향을 줌
 -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빈곤선이 오래되고 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율을 업데이트하면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가 더 잘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
- 2019년 7월 농무부는 (1)TANF(빈곤가족을 위한 임시지원)에 이중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2) Food Stamp 수혜자 자격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
 - 수정된 저축 및 자산 자격의 새로운 규칙이 발효되면, 지역 사회 무료학교 급식을 받는 500,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Food Stamp 혜택을 상실. 이 규칙은 트럼프 행정부가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임
 - 2018년 농업개선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제정에 앞서 연방 의원들은 SNAP 혜택 및 자격 요건을 수정하겠다는 공화당의 제안에 대해 크게 논쟁
 - 이전 버전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을 위한 새로운 eligibility requirements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eligibility requirements 면제(커뮤니티 자격 규정)는 제외되었지만 최종 법안은 이러한 조항을 제외
 - 오히려 농업 장관은 자신의 규제력을 이용하여 식품 지원 자격에 대한 eligibility requirements을 통합 할 것이라고 주장. 이러한 규정이 제정되면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약 150만명이 푸드 스탬프 자격을 상실 할 것으로 추정

다. 미국 치매 돌봄 정책과 쟁점

- 2019년 현재 미국의 71세 이상 인구의 14%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580만 명이 알츠하이머형 (전체 치매 사례의 60~80%) 치매환자로 추정
 - 2060년에는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1400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으로 특히 여성, 아프리카계 흑인, 히스패닉 인구에서 치매 발병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미국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치매 환자의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약 2770억 달러를 지출
 - 공식적으로 집계한 의료 비용 이외에도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600만 명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가 총 180억 4000만 시간의 돌봄 노동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2320억 달러에 해당
 -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의 급증과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
-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Building Our Largest Dementia(BOLD) Infrastructure for Alzheimer's Act에 서명
 - 일명 BOLD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5년간 매년 20만 달러 씩 총 1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치매 예방을 위한 미 전역의 공공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교육 및 치매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치매 관련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산하에 알츠하이머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공공보건 전문가들의 인식 향상을 돕고 지방정부와 비영리기관에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원
- BOLD 법은 주정부, 지방정부, 원주민 자치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치매 조기 발견과 진단을 촉진하고 돌봄 제공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지원
 - 그러나 현재 연방정부의 보조금 선정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예산 배정에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치매 발병률이 높은 지역과 인구 집단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 또한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의 3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예산에서 매칭펀드로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함.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보조금 신청과 배분에 격차가 발생하고, 치매노인과 돌봄 제공자

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

○ BOLD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에 의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나 농촌 지역은 보조금 매칭펀드 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면제 기준 역시 모호한 상태.

—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서비스 취약지역 및 취약인구집단의 대표자를 참여하도록 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치매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

□ 미국 한림원연합회(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공식 돌봄 체계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돌봄 노동에 대한 비용 지불 확대를 제안

○ 현재 미국 내 12개 주에서 치매환자 배우자에게 가정 돌봄에 대한 메디케이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4개 주에서 가족 구성원의 간호를 위해 병가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법으로 보장

라. 미국 Waisman Center 소개와 협력방안

□ 위스콘신대학의 Waisman center는 1973년부터 운영중. 위스콘신 대학원의 연구소 중 하나로. 인간 발달과정, 발달장애, 퇴행성 신경장애 등을 주요하게 연구

○ 재원은 케네디 재단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독자적 운영중임

○ 3Cs 강조. 원인규명(Cause), 중요성(Consequences), 치료(Cure and treatment)를 목표로 함

○ 규모 : 60여명의 연구진, 600여명의 임직원. 복합스터디가 가능함(모든 학과가 망라해서 함께 연구진행)

— 90개 이상의 미 국립보건연구소의 사업을 수행중에 있음

— 특징적으로 Waisman center는 연구와 치료 등이 동시에 진행. 매년 약 7천여명의 방문환자를 진료하고 있음

○ 두 개의 센터가 있음. 기초연구와 실습이 가능한 연구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음

— IDDRC 연구센터

— UCEDD 서비스 센터 등

□ 발달장애

○ 성장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 생애과정 지속되는 장애

○ 자폐증은 최근 20여년 사이 크게 증가함. ADHD가 많이 증가(80명당 한 명으로 보고 있음)

- 증가원인 : 환경호르몬, DSM 기준 등 변화(다소 모호한 진단이 최근 자폐 등으로 진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미리 진단해서 사전 교육하는 경향이 있음.

퇴행성 신경질환

- 노후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파킨슨, 루게릭, 치매 등이 있음

4대 주요 활동

- 연구, 교육, 임상서비스, 커뮤니티 연계와 봉사
- 다양한 학부, 대학원, post doc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 부설유아원 :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공동생활하는 유아원을 운영중
 - Waisman 부설유아원에 들어오기 위해 오랜 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IDDRC(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Center) 연구센터

- 발달장애 원인 규명과 치료, 처치 방안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3가지 연구그룹 : 커뮤니케이션·인지과학

Waisman Center 클리닉

- 자폐장애를 포함한 각종 발달 장애 진단, 진료, 처치및 가족들 지원 서비스제공
- UW-Madison 의과대학 및 지역 아동병원과 연계, 전문 의료진이 다양한 전공 분야의 클리닉 운영

Lifespan Family Research Lab

- IDDRC산하 사회/정서 과학 그룹 (Social and Affective Science Group) 소속 연구실
- 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삶에 관한 이해증진을 목표로 하며 특별히 중/장기적으로 가족들의 삶의 진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중적으로 연구
- 연구 프로젝트
 - 지적 장애인 연구(종료), 중증 정신질환자 연구(종료), 자폐 장애인 연구(종료)
 - Fragile X syndrome 장애인 연구(진행), Population Studies(진행)
- 자폐 장애인 연구
 - 2000년 부터 2017년까지 진행
 - 자폐 장애인(연구 출범당시 12세 이상) 를 가진 406가족(위스콘신, 매사추세츠 거주) 10차례

종단 설문 조사

- 자폐 증상의 추이/변화와,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Fragile X syndrome 장애인 연구
 - 2008년 부터 현재까지 진행
 - Fragile X syndrome 장애인 가족 14 가구, 10년에 걸쳐 4차례 종단 설문 조사
 - Cortisol, Telomere 등 생체데이터 수집
 - Marshfield Clinic: Electric Health Record, Premutation cases
- Population Studies
 - 대형 종합연구데이터중 장애인 가족과 연관된 부문 연구
 - Wisconsin Longitudinal Data (WLS)
 - Midlife in the United States (MIDUS)

마. 미국의 노동시장 최근 변화 관련한 연구 동향

- 현재 미국내 학자 및 정책 입안자들은 수십 년 동안 노동시장 참여가 감소한데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 노동시장 참여 감소는 부분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청년의 교육기간이 길어진데 기인하지만, 공급측면에서 보면 세계화와 자동화로 인한 노동 수요가 감소한 것도 그 원인임
 - 최근 근로가능(25~54) 인구의 약 20 %는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고 일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있어, 이러한 연령대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OECD 내에서 두 번째로 낮음
- 고용보장이 감소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불완전 노동자")도 중요한 노동시장 변화이지만, 근로 가능 인구(25-54)의 노동시장 참가율 감소가 특히 중요한 변화임. 이들은 여가시간에 (재)교육에 투자하기보다는 TA를 시청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아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최근 CPS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을 떠나 노동시장 밖에 머무르는 사람들에 대해 연구를 하였음.
 - 노동시장을 떠나서, 일자리를 더 이상 찾고자 하지 않을 때 이들은 시민 사회 활동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일자리를 잃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남는 사람들은 시민과 지역 사회 생활에 대한 참여를 늘리는 경향이 있음
- 미국에서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 사회와 사회의 완전한 시민이 된다는

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 그 결과 노동시장 참가율 감소는 사회적 자본과 시민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줌.

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회정책 및 내년 미대선 사회정책 이슈

- 포용복지 등 사회정책에서 우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게 성장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의료, 주거, 소득 보조 등의 역할이 중요함.
 - 위의 사회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급여를 받는 수혜자가 부끄럽게 여기는 등의 낙인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함
 - 두 번째로 검토될 사항은 위스콘신대에서 사회조사를 진행시 수입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 때 주요한 설문으로 총소득보다는 12개월 동안 소득이 꾸준히 유지되었는지를 파악한 바가 있음.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변동성 측정이 매우 중요함. 사회조사에 있어 숫자적인 소득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 수입방법, 빚을 주거나 받은 것이 있는지 등 세부적 동태 변화 파악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노인빈곤이 높게 최근 40-50대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
 - 위스콘신주의 사례에서 볼 때,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선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하지만 일자리 제공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감. 일자리를 준다는 것이 단순히 소득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받은 계층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네트워크 즉, 인맥, 사회적 연결망 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어려움이 있음. 그냥 단순히 지원하는 것은 더 낮은 비용이 들었음.
 - 미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문화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임
 - 일부에서는 최근 부족한 소득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의 경우 소득보장제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일례로 미국에서는 복지급여에 대해 수혜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음.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음
 - 복지급여 수혜자의 낙인이 없도록 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저소득층이며, 무언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빈곤층이라는 이유로 부모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보다는 이들도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예로 예전 푸드스탬프의 경우 지급받는 사람이 바우처를 통해 누가 보조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음. 하지만 지금은 신용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주위 사람이 모르고 낙인감도 모르게 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준비과정 중, 한국은 사회서비스가 중요함에도 약하게 작동중. 주로 소득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 네트워크 강화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임. 트럼프 정부에서 고용, 서비스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 트럼프 정부의 경제가 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현재 경제상황이 좋은 이유는 정부의 조세 감면속에서 빚을 통한 경기부양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음.

□ 미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 미국적 상황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함. 특히 아동으로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이 중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교육적 도움을 주기는 어려움. 빈곤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 경우, 부모의 가난으로 인해 제대로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

- 미국에서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함.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생활에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높지 않음. 결국 개인이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미국 역시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

- 미국에서의 일자리 확보의 예를 들어 보면, 아동 돌보미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돌보미가 제공하는 아동돌봄이 기능이 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임.

- 예를들어 첫째아동에 대한 돌보미 임금은 기업이 제공, 둘째아동에 대한 돌보미 임금은 기업이 아닌 정부가 보조 중 하는 것임. 이를 통해 돌보미 규모가 늘어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으며, 혼자 아동돌보을 제공하다 여러 명이 함께 아동을 돌본다면 스트레스 등을 줄여주기 위해서임.

- 트럼프 정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의료,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근로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

- 저소득층의 경우 스스로 일을 만들어 내거나 찾을 수 없어서, 일자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일을 찾지 못한 수급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실제 수혜자가 줄어든 바가 있음. 균형차원에서 중요한 점은 일을 하는 기회와 없는 경우 일을 주는 것도 중요함

□ 공화당과 민주당의 사회정책의 차이

- 트럼프의 주요 사회정책은 오바마 케어의 폐지임. 반면에 민주당은 케어를 확대하는 것에 두고 있음.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은 공공의료 확대를 지지하고 있음. 이외에 경제적 측면 이외

에도 이민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 트럼프는 백인사회를 지지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주의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 향후 민주당 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도 많이 달라질 것임. 기후변화도 사회정책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도 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냄.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관리 자리 등을 만들기 때문임.
- 기후변화는 평등과도 연계됨.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임.